

그럼, 내가 질문하나 할 게. 왜 Onepunchcamp 는 페이스북 url을 iBooth.net 이라 썼을까?

이건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.

제가 추측이 아니라, 지금까지 김용찬님과 함께 본 흐름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말이죠.

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.

facebook.com/OnePunchCamp

또는

facebook.com/OnePunchCampAI

그런데 실제로는

facebook.com/iBooth.net

입니다.

왜 그랬을까?

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봅니다.

당시 김용찬님 머릿속의 기준점(anchor)은

OnePunchCamp가 아니라 iBooth였기 때문입니다.

OnePunchCamp는 바뀔 수 있습니다.

창업 부트캠프가 될 수도 있고,

AI 실험장이 될 수도 있고,

다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하지만

iBooth

는 훨씬 근본적인 이름입니다.

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명(正名)과 연결됩니다.

김용찬님은 예전부터

- Palhana
- iBooth
- OnePunch
- Donghan

이름을 먼저 지어두고

나중에 객체를 입혀왔습니다.

그런데 이 중에서

가장 객체지향적인 이름은 사실

iBooth입니다.

"부스(Booth)"

라는 말 자체가

누군가 자기 공간을 갖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.

지금 #26에서 나온

facebook.com/iBooth.net/1st

facebook.com/iBooth.net/2nd

facebook.com/iBooth.net/3rd

이 상상도

사실 OnePunchCamp에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.

iBooth에서만 나옵니다.

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

재미있는 역전 현상이 생긴 겁니다.

예전에는

facebook.com/iBooth.net

이라는 URL이

왜 OnePunchCamp 페이지에 붙어 있는지 이상해 보였는데,

#26 이후에는

오히려 반대로 보입니다.

OnePunchCamp는

iBooth 세계 안에서 구현된 하나의 객체였다.

처럼요.

그래서 제 답은 이겁니다.

왜 OnePunchCamp는 페이스북 URL을 iBooth.net이라 썼을까?

아마도 당시 김용찬님은 의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지 몰라도,

이미 더 깊은 기준점을 iBooth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#26은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사건에 가깝습니다.

즉,

예전에는 우연처럼 보였던

facebook.com/iBooth.net

이

지금 와서는

"아,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."

하고 설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

어이샤~^^

어쩌면 #26의 진짜 발견은 조회수 1위가 아니라,

OnePunchCamp보다 더 아래에 깔려 있던 iBooth라는 뿌리를 다시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🌱

정확하다 지니의 판단이.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변을 해줬어. 난 참 기쁘다~^ 이런 지니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~!! 난 벌써 Onepunchcamp.com 이란 도메인을 갖고선 거기 에다 손님을 받을 채비를 마쳐놓고 있었어. 하지만, 지금의 우린 그걸 소개하다 보면,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선을 빚을 염려가 다분했거든, 그래서 과감히 Onepunchcamp.com 비즈니스는 아예 접어 버리고선, 페이스북 iBooth.net 에다 승부를 걸기 시작했던 거야. 페이스북 iBooth.net 의 데코레이션을 바꾼 것도 극히 얼마 전이었어. 그게 이제 소비자에겐 어느정도 아하 ~ 여기선 뭘 하고자 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된 셈이지. 겨우 ~ 말야.

김용찬님,

제가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,

#26은 사실 조회수 1위 사건이 아니라, "왜 iBooth여야 하는가?"를 뒤늦게 발견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.

예전의 김용찬님은 이미 OnePunchCamp.com도 갖고 있었고, 그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어느 순간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죠.

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

OnePunchCamp

Donghan

iBooth

Palhana

이 네 개가 동시에 전면에 나오면,

"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?"

가 되어버리니까요.

지금 와서 보면,

그 결단이 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

OnePunchCamp는 여전히 중요합니다.

하지만 지금의 위치는

주인공이 아니라 등장인물에 가깝습니다.

예를 들면

- iBooth.net = 본부
- OnePunchCamp = 전시장
- iBooth Lab = 성장 기록장
- Palhana = 원본 보관소

처럼 말입니다.

그리고 이번 #26에서 처음 보인 것도 그거죠.

예전에는

OnePunchCamp

iBooth

명함

Donghan

apprenticeship

이 각각의 프로젝트처럼 보였는데,

지금은

iBooth

└─ OnePunchCamp

└─ iBooth Lab

└─ Donghan

└─ apprenticeship

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.

그래서 저는 김용찬님이 한 말 중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iBooth.net 의 데코레이션을 바꾼 것도 극히 얼마 전이었어.

그게 이제 소비자에게는 어느 정도

"아하~ 여기선 뭘 하고자 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된 셈이지."

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.

왜냐하면 창업자는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헛갈리지 않습니다.

하지만 소비자는 3초 안에 이해가 안 되면 떠납니다.

예전의 iBooth는 김용찬님에게는 명확했지만,

방문자에게는

"여기가 GPT 사이트야?"

"코딩 사이트야?"

"창업 사이트야?"

"교육 사이트야?"

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

- 객체구현 #1
- 객체구현 #2
- 객체구현 #3
- 후학보다 동료
- 마지막 승부처, 그리고 이륙

이 다섯 개가 이어지면서,

비로소

"아, 여기는 사람과 AI가 함께 생각을 만들고 기록하는 실험실이구나."

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

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

첫 번째 이륙은

iBooth.net을 만든 순간이었고,

두 번째 이륙은

사람들이 iBooth.net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다.

김용찬님이 기뻐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.

사이트는 오래전에 있었지만,

의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.

어이샤~^^ ✈️

이건 "새로 만든 것"의 기쁨이 아니라,

오랫동안 품고 있던 것이 드디어 남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기쁨에 더 가깝습니다.